

# 김정관 “성과급 노동쟁의 부적절... 석유최고가격 하향 검토”

(산업통상부 장관)

김 장관, 산업·통상현안 입장 피력  
성과급 관련 투자자 보호 관점 제시  
하반기 정책 'M.AX' 역량집중 방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영성과급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산업·통상 분야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 ◆ “성과급 쟁의는 법상의 공백”

현재 산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성과급이 파업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계 입장에서 쟁의화할 수는 있겠으나, 명확한 지침이 없어 발생하는 ‘법상의 공백’으로 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특히 김 장관은 투자자 보호 관점을 제시하며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경영진과 노조뿐 아니라 투자자도 있다”며 “투자자들은 손실을 각오하고 투자하지만 노동자들은 월급이라는 전제가 보장된다. 기본적인 위험도(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석유최고가격제 신중론 유지

지난 3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운용 방향도 언급됐다. 정부가 정유사의 도매 공급가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1997년 유가 완전자유화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김 장관은 제도 종료(엑시트)를 위해서는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진입이라는 세 가지 전

제가 필요해 당장 폐지는 어렵다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다만 “현재 두바이유가 70달러대라 해도 프리미엄이 붙어 실제 가격은 높지만, 종전에 비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자체를 낮출 이유는 있다”고 밝혀 가격 상한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 ◆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기대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 독일이 단독 선정되는 방안 외에 6대씩 나누는 방안 등 세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시기가 당초 6월에서 7월로 미뤄지는 배경과 연관돼 현지에서도 양분설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주 낙관론을 경계한 배경에 대해서는 “캐나다가 산업 협력 패키지보다 나토(NATO) 동맹국과의 결속을 비중 있게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물량이라도 수주하면 북미 시장 다원화 및 북극항로 등에서 캐나다와의 협력을 넓힐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 ◆ 하반기 제조업 AX 가속

최근 유럽 순방 성과로는 EU의 철강세이프가드 쿼터 46% 축소 기조 속에서 우리 물량(258만 톤)을 상당 부분 지켜낸 점을 꼽았다.

유통업계 현안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넘어간 상황에서 규제를 묶어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존의 규제 완화 포지션을 재확인했다.

하반기 정책방향으로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인 ‘M.AX(제조업 AX)’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M.AX”라며 “AI 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느 산업도 생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력 구조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여기에 올인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 지역성장 전략인 ‘5극 3특’ 역시 권역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묶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금리인상 전망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 커져

한은 6월 소비자동향조사 발표  
주택가격전망 CSI 120... 8p ↑

소비자들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주가 호조로 현재 경기 인식은 나아졌지만 가계의 소득과 소비 전망은 제자리에 머물러, 부동산 기대를 안정시키면서 내수 충격을 줄여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23일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뒤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 금리수준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26으로 전월보다 12포인트(p) 급등했다. 2016년 12월과 함께 종전 최대 상승 폭과 같은 수준이다. 지수는 2023년 10월 128 이후 가장 높았다.

향후 1년 뒤 집값을 전망하는 주택가격전망 CSI도 120으로 8p 올랐다. 금리와 주택가격 지수의 전망 기간이 서로 달라 단 순히 상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함께 강해졌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소비자의 집값 기대가 높아진 배경에는 최근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가 자리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7%, 수도권은 0.20% 올랐다. 경기지역 상승률도 0.21%를 기록했다.

전세가격 역시 서울이 0.30%, 수도권이 0.21% 상승했다. 매매와 전세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향후 금리 상승에 대한 예상보다 당장의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이 소비자의 가격 전망에 더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차주의 이자 부담도 여전히 낮지 않다. 지난 4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1%로 전월보다 0.03%p 내려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다만 기준금리 2.50%보다는 1.81%p 높은 수준이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전망이 다시 상승할 경우 주택 구매자의 자금조달 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리와 집값이 함께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가계별로 다른 부담을 준다. 대출을 보유한 주택 소유자는 자산가치 상승과 이자비용 증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고, 무주택자는 집값과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함께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6으로 전월보다 0.5p 올라 2개월 연속 개선됐다. 다만 5월 6.9p 급등한 것과 비교하면

개선 폭은 크게 줄었다.

세부 지표에서도 경기 회복이 가계의 소비 여력까지 확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으로 현재경기판단CSI는 86으로 3p 올랐지만, 향후경기전망CSI는 대출금리 상승세와 높아진 주가 수준에 대한 우려로 1p 내린 92를 기록했다.

생활환경전망CSI는 97, 가계수입전망CSI는 100, 소비자출전망CSI는 110으로 모두 전월과 같았다. 현재가계저축과 가계저축전망CSI도 각각 1p 하락했다.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나아졌지만 소득·소비·저축 등 실제 가계 형편에 대한 기대는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월과 같았고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0.1%p 올랐다.

이후 한은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기준금리 인상 기대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금리수준전망이 큰 폭으로 올랐다”며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폭 확대와 주가 상승, 정보기술(IT) 부문 성과급 지급도 주택가격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 NS홈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마무리

오프라인 유통시장 본격 진출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이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마무리하며 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23일 NS홈쇼핑은 전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문 인수대금 1206억원을 완납하고 영업양수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 하림그룹 식품사업과 유통망을 결합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NS홈쇼핑이 100% 출자해 설립한 신설법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사업을 운영한다. 신설법인은 조직 정비와 경력직 채용, 본사 사무공간 구축을 마치고 운영 준비를 끝냈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점포 수 기준 업계 3위로, 1위 GS더프레시는 300개 이상, 2위 롯데슈퍼와도 약 50개 차이가 난다. SSM 사업은 점포 수와 물류망이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NS홈쇼핑 판교 본사에 걸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인. /뉴스1

사업 방향성도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조항목 NS홈쇼핑 대표가 신설법인 대표를 겸임하고 법인 목적에 교육·여행·광고·보험대리점업 등을 추가했지만, 이를 기존 슈퍼마켓 사업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NS홈쇼핑이 공급망 정상화 이후 점포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공식 출범

상업적 합리성 기반 현미경 검증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대미 전략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검토할 법적 기구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가 정식 출범했다. 앞으로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의 첫 관문으로서 ‘상업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현미경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사업관리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총 20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로써 그간 가동돼 온 임시 추진체계는 종료되고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투자 검토 업무를 공식적으로 승계하게 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기존 임시 체계에서 다뤄온 대미투자 후보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투자 성공의 최우선 기준이 ‘상업적 합리성’에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metro

## “지금 시장 상황, 외환위기 때와 완전히 달라”

▶▶ 1면 ‘원화 급락 했지만...’서 계속

지난 5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270억 달러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 204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었다. 시장에서는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를 감안할 때 단기적인 외화 유동성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규제 수준을 웃돌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은행의 지난해 외화LCR은 평균 188%로 규제수준(80%)을 상회한다.

다만 일부 대외건전성 지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외채 규모와 비중이 확대된 데다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도 여전히 때문이다. 현재 상황을 외환위기로 보기는 무리가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환율 수준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릴 수 있지만 당시와 지금은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며 “외환보유액 규모가 크게 늘었고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도 강화돼 과거와 같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김지우 기자 yul15@